

배포 일시	2023. 3. 27.(월)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성민 (044-201-5130)
	광역환승과	담당자	사무관 최두현 (044-201-5134)
보도일시	2023년 3월 2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8.(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4곳 선정

- 최우수 : 평택지제역, 강릉역 / 우수 : 마산역, 대전역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평택지제역,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로, 이번 공모는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앞서 미래형 환승센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시행('22.12.5. ~ '23.2.17.)하였으며, 총 12개 지자체에서 공모에 신청하였다. 대광위는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거쳐 평택지제역, 강릉역을 최우수사업으로, 마산역, 대전역을 우수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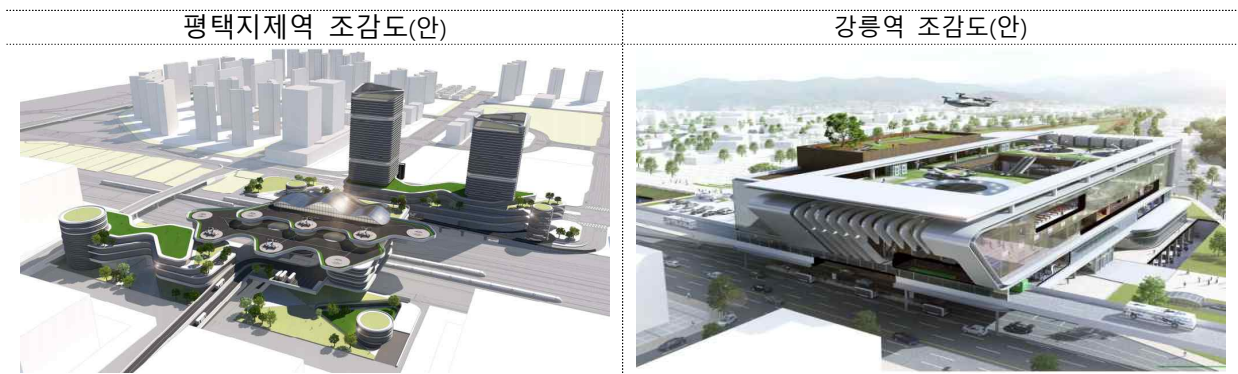
### <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결과 >

구분	지자체	사업지	주요 특징
최우수	평택시	평택지제역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
	강원도 강릉시	강릉역	ITS 세계총회 등과 연계한 중소도시 관광형 환승센터
우수	창원시	마산역	60초 환승이 가능하며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
	대전시	대전역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균형발전 촉진

□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 : 평택지제역, 강릉역**

- 평택지제역은 경기 남부 광역교통 거점으로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따른 평택시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강릉역은 동해안권 교통 및 관광 허브로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ITS 세계총회('26) 등과 연계하여 강릉역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우수 : 마산역, 대전역**

- 마산역은 60초 환승이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교통광장을 시민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으로, 환승편의성 극대화는 물론 도시재생 계획과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대전역은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선로 상부와 광장을 활용하여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도심융합특구 등과 연계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광역교통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



\* UAM 등 공모내용은 기술변화, 정책 여건 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대광위는 공모제안서를 토대로 미래형 환승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정 지자체에 **계획수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 국비 10억원을 선정 지자체에 나누어 교부(지자체는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계획 수립)
  - 또한, 지자체가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도시계획·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을 운영하여 전문·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기술 동향과 서비스 수준 등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미래형 환승센터는 여러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용객의 환승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 중심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핵심 거점**으로도 기능할 것”이라면서,
  -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